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변신을 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주하기를 원한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 왔고 하고 있는 일에만 집착하는 편안한 생각을 흔히 하기 쉽다.

요즈음 우리들의 주위환경은 시각적(時刻的)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들도 변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WTO 체제의 출범으로 국가간의 무역장벽이 해체되고 있고 그나마 잔존하고 있는 보호벽도 조만간 무너질 운명에 처해 있어 완전한 자유경쟁 시대에 돌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정부와 법규의 보호 아래 존립하고 있는 단체들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 연구소의 입장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특히 보험시장의 개방화 정책에 따라 이미 특약부 화재보험의 POOL이 해체되었으며 보험요율의 자유화등으로 사원회사인 손해보험회사에서는 경쟁력강화를 위해 변화의 파고가 높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은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협회의 고유한 방재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모든 업무에서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연구소는 국가방재, 보험의 과학화 및 방화제품 개발 등의 설립목적에 따라 지난 10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국내시장규모의 협



이 경 구 / 방화구조부장

소, 사회적 인식부족 등으로 자립율이 기대치에 미달되어 있다.

수익율을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은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통용될 수 있는 명제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 자신의 능력향상과 연구소의 능력배양을 위해 최선을 경주하여야 자립기반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자 주위의 조그만 모순부터 하나 하나씩 개선하며, 조직 전체가 일심동체로 변신을 추구하는 것도 자생력을 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들 자신이 책임을 지고 개척해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의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변신을 하는 것은 조직의 무궁한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FLK)